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용태 “다시 도전할 시간”

도쿄 열정 안고 LA 향하는 발걸음 재할·후배들과의 훈련이 일상 변화한 근대5종, 힘든 종목 애착 “결과보다 과정 지켜봐 주세요”

“장애물로 바뀐 근대5종, 저에겐 또 한번의 도전입니다. 도쿄의 기억을 안고 LA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종목 변화 속에서도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수술과 재활, 후배들과의 훈련까지, 그는 지금 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전용태는 지난 24일 전남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디지털 콘텐츠 ‘진일보합니다’에 출연해 “이제는 저도 새로운 근대5종을 시작하는 입장이다. 결과보다 과정 전체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새로운 근대5종 시대를 향한 각오를 밝혔다.

근대5종은 수영, 육상, 사격, 펜싱, 그리고 장애물 경기로 구성된 복합 종목이다. 과거에는 승마가 포함됐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더 대중적이고 친숙한 형태로 개편됐다.

전용태는 “이 변화가 근대5종의 새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근대5종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걸

며 화제를 모았던 전용태는 여전히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날의 온도,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그 기억이 지금도 훈련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 등 굵직한 무대를 거처온 전용태는 최근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입증했다.

그는 지난 15일 전남 해남 우של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남자 일반부 5종 개인전 결승에서 총 1601점(펜싱 278점 1위·수영 311점 10위·장애물경기 331점 17위·레이저런(사격+육상) 681점 1위)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전용태는 “장애물 종목이 처음이라 부담이 컸다”며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수술 때문에 나서지 못했지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전용태는 어릴 적 승마를 하던 중 낙마 사고로 팔꿈치 골절을 당했고, 이 사고로 삽입했던 금속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지난해 말 받았다.

수술 후 재활과 훈련을 병행한 그는 광주시청 소속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후배들과의 교감도 넓히고 있다.

전용태는 “국가대표 선수촌이 아닌 소속팀에서 후배들과 지내면서 오히려 더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지난 24일 전남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디지털 콘텐츠 ‘진일보합니다’에 출연해 2028 LA올림픽 도전 의지를 다지며 응원을 당부하고 있다.

김우진 PD

배우는 것도 많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요즘은 삼촌 같은 역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후배 선수들의 롤 모델로 꼽히기

도 한다. 광주체육고 근대5종팀 최지웅은 “전용태 선수가 꿈”이라고 밝혔고, 이에 전용태는 “최지웅은 저보다 신체 조건도 좋고 센스도 있다. 저를 뛰어넘는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전용태의 향후 계획은 2028년 LA올림픽 출전이다. 그는 “도쿄, 파리, 그리고 LA까지 세 번째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근대5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만만치 않은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벽 레이저런부터 오전 수영, 오후 펜싱과 장애물 훈련까지 하루에 다섯 종목을 모두 진행하며, 별도로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병행한다.

그 중 가장 힘든 종목은 체력이 요구되는 레이저런과 수영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전용태는 “힘들지만 종목에 대한 이해도와 체력 유지를 위해 매일 다섯 종목을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며 “특히 레이저런과 수영은 가장 어렵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종목이라 더 애착이 간다”고 설명했다.

펜싱에 대해서는 “점수를 초반에 잡아야 흐름을 타는 종목이라 부담이 크다”며 “세 명의 지도자에게 각각 피드백을 받아 세밀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전라남도체육회가 지난 27일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운영평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 관계자가 2026년 구례에서 열릴 제65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선 방안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체육회, 제64회 도체전 운영평가회 개최

참가자적 개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전라남도체육회가 27일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운영평가회’를 열고, 2026년 구례에서 열릴 제65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손점식 도 체육회 사무처장, 오미경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이길용 구례 부군수,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을 비롯해 22개 시군 체육회와 23개 종목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회는 유공자 표창, 차기 대회 준비 상황 보고, 운영 개선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제64회 대회는 지난 4월 장성군에서 열렸으며,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 80명에게 도지사 및 체육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도지사 표창에는 김남수(장성군 서삼면체육회), 김희철(전남농구협회), 체육회장 표창에는 최규원(장성군 체육시설사업소), 박승근(전남육상연맹)이 대표로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장성군 창군 이래 처음 열린 종합체육대회로, 지역 사회단체의 협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속에 도민 화합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운영 개선 논의에선 △당구 1쿠션 종목 세분화 △탁구 여자 단체전 점수 100% 반영 △체육지도자 참가 기준 정비 등 세부 규정 개정이 제안됐다. 아울러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무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대회 운영 시 안전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됐다.

이외에도 개·폐회식 시간 조정, 경기장 배정 기준, 숙박업소 관리 등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전남체육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7월 중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개최 계획을 확정하고 각 시군 및 종목단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손점식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은 “64회 대회를 함께 만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함께하는 전통 있고 내실 있는 체육축제로 전남체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제1회 전라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탁구 종목에 출전한 동호인들이 지난 2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

제1회 전라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전남형 스포츠클럽 종합체육대회 도내 36개 클럽 1000여명 참가

전남형 생활체육의 미래를 열 첫 걸음인 ‘제1회 전라남도스포츠클럽체육대회’가 지난 28일 목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도내 36개 공공스포츠클럽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남에서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열린 첫 종합 체육대회다.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목포스포츠클럽과 전남회원종목단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의 축제’라는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전남도가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

성화를 위한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전남도와 도교육청, 시군 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회에는 종합형 19개, 한종목형 17개 등 전남 전역의 36개 스포츠클럽에서 약 1000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배드민턴, 축구, 야구, 탁구,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에서 열린 경합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소속 클럽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건강과 화합의 가치를 나눴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이번 대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남형 체육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라

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남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우수 선수와 체육 인재가 발굴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앞으로 이 대회를 정례화하고 규모를 점차 확대해, 전국적인 수준의 스포츠클럽 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세대를 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전남형 스포츠문화의 새 출발”이라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체육을 더 쉽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도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